

금속노조·삼성물산 10년 만에 마주 앉았다 노조 삼성지회, 첫 임금 단체교섭 상견례 열어 ... “달라진 삼성 제대로 보여달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6월 10일 오후 경기 용인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2021년 임금·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삼성지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노·사가 교섭장에서 만났다. 이날 노조는 교섭 기본협약 체결과 지회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에 서 다시는 노조 탄압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사측 불법으로 삼성지회가 십 년 동안 단체교섭을 못했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올해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줄 길 바란다”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노일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부사장은 “지난해 무노조 관련 발표 이후 삼성은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다. 새로운 변곡점에 있고 경영 방향도 확실히 달라졌다”라며 “전과 다른 모습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 계속 협의하면서 올해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풀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첫 단체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서로 드러내며 잠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마주 앉는 데 걸린 시간이 긴 만큼 첫 교섭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회와 사측은 교섭원칙 수



립부터 견해차가 커 뼈격대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업노조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삼성지회는 사측에 ▲교섭장소·주기·방식 ▲교섭위원 유급전임 ▲자료제공 등의 내용을 묶어 교섭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사측 거부로 교섭원칙부터 난항

정주교 부위원장은 “단체교섭 진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요구했다. 사측 거부로 교섭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상견례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사내에서 주 2회 교섭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사측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지회가 어려운 조건에서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삼성지회가 제시한 교섭원칙 내용 전반에 난색을

보였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단체교섭 진행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첫 단체교섭이라 자료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주 1회 교섭을 고수했다. 노조 활동을 위해 제공한 기존 타임오프 시간을 쓰면 되지 않냐고 되묻기도 했다.

원용훈 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교섭과 상관없는 삼성 계열사 기준에 왜 따라야 하나. 삼성 기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사측은 금속노조 사업장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원 부지부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은 온전한 임금과 근무를 인정받는데, 노조 교섭위원들은 개인 시간을 쓰고 임금 손해를 본다.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우 삼성지회장은 “사측은 사내 공간이 없어 금속노조에 사무실

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작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 사내 사무실을 주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박 지회장은 “아직 사측은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화를 약속했다. 달라진 삼성을 제대로 보여달라. 안된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 라고 노조 교섭원칙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노·사는 상호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상견례부터 노·사 간 명확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노조와 삼성물산은 조속히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원칙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는 차기 교섭에서 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며 상견례를 마쳤다.

“교섭창구 단일화법? 어용노조 무한 증식법”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 규탄대회 ...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농성투쟁 마무리

금속노조가 6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11일 대회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노조 제도를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며 “노동부만 이 사실을 모른 체한다”라고 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은 “사용자는 친기업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개별교섭을 하고,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교섭은커녕 민주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아낌없이 쓴다”라고 규탄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사용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악용은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기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창구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노동자가 자본이 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과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동부와 면담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법 개정은 너무 먼 얘기이고, 보완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김훈 대전충북지부 대양관지회장은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 노조를 만들어 낸다. 거짓 노조로 들통나서 설립이 취소돼도 또 만든다”라며 “어떻게든 어용 다수노조를 만들면 금속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훈 지회장은 “추미애라는 일개 국회의원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 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며 “자본의 위력에 침묵하고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노동부 때문에 가능한 비극이다”라고 규탄했다.

윤재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모든 노동자가 알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동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범이자 자본의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두 주 동안 벌인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와 각 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 헌법재판소, 서울노동청 등에서 복수노조-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선전전, 토크콘서트, 길거리 강연, 집회 등 투쟁을 전개했다.